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6. 30.(수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부서 도로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장순재, 사무관 김 호, 전문위원 신승환 • ☎ (044) 201-3881, 201-3886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“상습 정체” 중부고속道 30년 만에 확장 길 열려

- 서청주~증평 확장사업 타당성 통과 ... 2024년 착공 -

- 충청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부선 서청주-증평 확장사업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.
- 중부선 서청주-증평 확장사업은 6월 30일(수) 개최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(B/C 0.77, AHP* 0.519)한 것으로 의결되었다.

*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.5 이상인 경우 사업 타당성을 확보

< 사업개요 >

- (위치)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~ 오창IC ~ 오창JCT ~ 오창휴게소 ~ 증평IC
- (규모) 15.8km & 4→6차로 / (총사업비) 2,632억원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'87년 개통되어 노후된 중부고속도로의 시설물 개량을 위해 기본설계를 시행하던 중에, 방음터널 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.
- 이 사업은 '19.6월 타당성재조사에 착수한 이후, 경제성 분석(B/C)과 지역개발, 고용창출효과 등의 정책성 분석에 대한 종합평가("21.6.15)를 거쳐 금번 위원회에서 통과하게 된 것이다.

□ 서청주-증평 구간은 평일에는 권역 내 출·퇴근 차량이 다수이며, 주말에는 수도권과 지역 간 나들이 차량이 몰리는 등 상시로 시속 50~60km/hr 수준에 불과한 상습정체 구간이었다.

* 서청주~증평 구간은 전국 4차로 고속도로 구간 중 **대도시권을 제외하고, 교통량이 6.7만대~7.3만대로 최대 수준임**

○ 서청주-증평 구간 확장 시 교통용량이 크게 확충되어 통행시간이 최대 14분 단축되는 등 도로이용자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.

○ 또한, 국가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“오창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”, “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”의 관문역할도 **특특히 할 것**으로 기대된다.

□ 건설기간 동안 재정 투입으로 약 2,815명의 고용유발은 물론,

○ 그간 오창초·중·고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행로인 장대2육교 하부는 보도폭이 1m에 불과하였으나, 보행자용 통로암거(3.5m×3.5m)를 별도 설치하여 학생들 등하교길 안전을 제대로 확보할 계획이다.

○ 한편, 교량 높이가 낮아 대형차 통행이 곤란하였던 남촌육교는 높이를 높여(3.5→4.5m) 대형차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“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중부선의 교통혼잡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,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'24년에 착공할 것”이라면서,

○ “설계과정에서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여 주민, 지자체, 관계기관 요구사항도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며, 중부선 나머지 구간도 순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김 호 사무관(☎ 044-201-38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